

# 프로기사 상금, 그 빛과 그림자

지난해 국내프로바둑 상금랭킹 1위 이세돌이 벌어들인 총상금은 5억7천894만원이다. 또 2007년에는 역대 최다인 총 13명의 기사가 연간 상금 1억원을 돌파했다. 그만큼 바둑계의 총상금 규모가 커졌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대회에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한 기사들의 경우 단 한 풀도 벌지 못한다. 또 시즌 중에 입단한 새내기들은 몇 개 대회 밖에 참가하지 못해 상금이 적다.

지난해 자신이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대회에 나온 기사를 중 상금 랭킹 최하위는 김모 6단이다. 총 상금액은 332만원. 한 달 평균으로 치면 27만7천원 정도다.

성적은 1승15패니 한 판 당 평균 대국료는 19만5천300원이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그빈 자로 정부로부터 생활보호지원금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세돌은 2007년도에 총 106판을 뛰 81승 25패를 기록했으니 한 달 평균상금이 4천824만5천원이고 관당 평균 546만1천700원이다.

현재 한국의 기전 시스템은 전체기사가 참가하는 본격기전과 성별, 나이별, 단(段)별로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기전이 있다.

이 때문에 참가자격을 많이 따낼수록 수입이 많다. 하지만 전체 기사가 참가하는 본격



상금의 빛과 그림자

항 목	이세돌 9단	김모 6단
총 수 입	578,943,330원	3,320,000원
전 적	106전 81승 25패	16전 1승 15패
월 평균 수 입	48,245,000원	277,000원
한판당 평균 대국료	5,416,700원	195,300원
출전 기 전 수	20개	15개
출전기전 평균 대국수	5.3국	1.06국
각기전당 평균 상금	28,947,166원	221,333원

## 이세돌 작년 상금 5억8천만원 등 13명 1억원 돌파

## 최하위 332만원…80여명 연 수입 500만원도 안돼

기전에 밖에 나올 수 없는 기사들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해 김모 6단이 참가한 기전은 총 15개. 제26회와 제27회 KBS바둑왕전, 강원랜드배 명인전, 지지옥션배, 박카스배 천원전, KT배 왕위전, 물가정보배, 한국리그, LG배,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국수전, 원의배 십단

전, 농심신라면배, 삼성화재배, GS칼텍스배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바둑왕전 1회전 대국료는 13만원, 명인전 28만원, 천원전 16만원, 왕위전 20만원, 물가정보배 12만원, 한국리그 40만원, LG배 20만원, 기성전 10만원, 국수전 19만원, 십단전 14만원, 농심배 28만원, 삼성화재

배 20만원, GS칼텍스배 25만원으로 총합계는 265만원이다. 한달 평균 22만원꼴이다.

김모 6단의 경우 단 별로 대국료에 차등을 두는 기준점을 상회하는 6단이고 만45세 이상이어서 지지옥션배에 참가했다. 기성전에서 1승을 거두었고 운 좋게도 바둑왕전이 1년에 두 번 개최되어 최소금액보다 67만원을 더 번 셨다.

총 223명의 프로기사 중 일년 대국료의 합계가 500만원도 되지 못하는 기사는 80명을 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프로 기사는 매년 9명을 선발하는데 한국기원 연구생들 중에서 우선 2명을 뽑고, 봄·가을 입단대회에서 각 2명씩 모두 4명을 선발한다. 또 각 지방의 연구생들만 참가하는 지역연구생 대회에서 1명, 그리고 여성 2명 선발할 뿐이다. 많은 유망주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연습한 뒤 몇 년 동안 도전해 프로의 이름이 허락된다.

오규철 9단은 “대부분 프로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강의와 바둑 지도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면서 “국내 바둑 발전을 위해서는 기사들이 바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자체와 기업의 팀 창단을 통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히”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김기용, 신인왕 손대지 마!

비씨카드배, 흥성지 꺾고 10일 첫 우승컵 도전



에 도전한다.

지난 2004년 입단한 김기용 4단은 제10회 LG배 세계기왕전 32강, 2007한국바둑리그 출전, 제12회 삼성화재배 16강 등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번 대회 상금은 우승 2천500만원, 준우승 1천만원으로 신예기전 중 최고의 규모다.

제18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은 본격 기전 우승경력이 없는 기사 가운데 연령에 관계없이 입단 후 만10년 이내의 기사들이 출전할 수 있다.

대회 제한시간은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이며 인터넷 바둑 전문 사이트인 사이버로고(<http://www.cyberoro.com/>)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김기용은 오는 10일 첫 우승컵

## 박지은-이민진 “여류국수 양보못해”



국내 첫 여성 9단인 박지은과 경관장배에서 5연승을 차지한 이민진 5단이 오는 11일 제13기 가그린 배 프로여류국수전 결승에서 맞붙는다.

이번 대회에서 이민진은 루이아이웨이 9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민진은 지난달 21일 서울시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맞붙은 루이아이웨이를 218수만에 백불계로 누르고 생애 첫 여류기전 결승전에 올랐다.

박지은은 올해 7승4패, 이민진은 4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여자랭킹은 각각 1위, 9위이지만 역대

전적에서 2승2패로 팽팽하다.

객관적인 전력은 박지은이 조금 앞선다. 박지은은 대리배, 원양부동산배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폐기의 이민진도 정관장배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어 초반부터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

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제한시간 3시간에 60초, 초읽기 5회로 진행되며 결승전은 3번기로 펼쳐진다. 상금은 우승 1천백만원, 준우승 500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바둑, 집에서 편안히 1대1로 배워요”

### 에듀마이스터, 가정방문 지도

을 방문해 바둑을 지도한다. 교재는 양재호 9단, 현미진 4단, 한혜원·윤영민 2단 등 혁역 프로 바둑 기사들이 직접 만들었다. 또 전문 동화 작가들이 흥미로운 그림을 곁들였다.

방문 교육 서비스는 입문, 초급, 중급 과정으로 나뉘져 있으며 주 1회 방문(30분), 월 1회 학습평가로 이뤄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극락전 납풀당이 있습니다

선명부모와 당신의 모자를 누기 관리하세요?

제작자: 김민경  
제작일: 2008-03-01  
제작번호: 2008-03-01  
제작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제작비용: 100,000원

제작자: 김민경  
제작일: 2008-03-01  
제작번호: 2008-03-01  
제작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제작비용: 100,000원

제작자: 김민경  
제작일: 2008-03-01  
제작번호: 2008-03-01  
제작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제작비용: 100,000원

## 신축을 기념해 일식요리의 명기

## 첫화

그동안 관리해주었던 그늘 아래 남아드셨습니다.  
정아비 차세로 친척에 감사 축립하고  
인축학당 재임하여 봉안했습니다.  
세포증 경비어로 언제나 친절한 조식을 즐깁니다.

봉송

대·소연회/성연례/각종 모임 및 접대  
단체행영/주차장완비

淸 河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로 4가 25-1번지  
223-7037 / 224-5002